

죄책감과 수치심의 억제가 도덕적 판단, 의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uppressing Guilt and Shame on Moral Judgment, Intention, and Behavior

한규은* · 김민영*** · 손영우*

Kyueun Han* · Min Young Kim*** · Young Woo Sohn*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Emotion is considered to be involved in the moral decision-making process consisting of moral judgment, moral intention, and moral behavior.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istinct role of two specific moral emotions, guilt and shame, when they are suppressed, on moral judgment, moral intention, and moral behavior through an online experiment. Moral emotion (guilt vs. shame) as well as suppression of these emotions (suppressing vs. control) was manipulated to infer the causality of moral emotions and the moral decision-making process when they are suppressed. The results suggest that suppressing guilt was involved in moral judgment and moral intention, but was not involved in moral behavior. In particular, participants who maintained guilt evaluated moral vignettes as more moral and perceived that they would follow the behavior described in the vignettes than those participants who suppressed their guilt. On the other hand, our data showed that suppressing shame was not involved in moral judgment and intention but was in behavior. Participants who maintained shame engaged in moral behavior more than participants who suppressed shame. We delineate the different mechanisms between guilt and shame on the moral decision-making process with the discrete emotion theory.

Key words: Moral Judgment, Moral Intention, Moral Behavior, Guilt, Shame

요약

정서는 도덕적 판단, 의도, 행동으로 구성된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방법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억제되었을 경우에 도덕적인 판단, 의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도덕과 관련된 정서가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덕과 관련된 정서(죄책감, 수치심)와 정서의 억제(억제, 대조집단)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죄책감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 교신저자 : 김민영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mkim@kmu.ac.kr

TEL : 053-580-543

FAX : 053-580-531

의도에 관여되어있지만, 도덕적 행동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죄책감을 유지했던 피험자들은 억제했던 피험자들보다 지문에 묘사된 도덕적인 상황을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았다. 반면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의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수치심을 유지했던 피험자들은 억제했던 피험자들보다 실제 도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본 연구는 비연속적 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이 억제되었을 경우, 도덕적 의사결정 단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주제어: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의도, 도덕적 행동, 죄책감, 수치심

1. 서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들을 경험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한다. 도덕적인 의사결정이란 윤리적인 의사결정보다 더 넓은 의미로 법적인 제재와 상관없이 개인의 도덕적 잣대나 사회적 기준에 의하여 옳고 그름이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Freeman, Reed, Felps, & Lim, 2009; Geno, 2012). 이에 죄책감과 수치심은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de Hooge, Zeelenberg, & Breugelmans, 2007; de Hooge, Breugelmans, & Zeelenberg, 2008; de Hooge, Nelissen, Breugelmans, & Zeelenberg, 2011; Steenhaut & van Kenhove, 2006;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이전의 연구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당장 눈앞의 이득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rank, 1988, 2004), 죄책감을 지닌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많으며(Haidt, 2003), 본인에게만 이득이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을 지닌다.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은 부정적인 정서 중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죄책감과 수치심이 유발되면 개인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고자 노력 한다(Gross, 1998). 죄책감과 수치심을 감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인지적 자원이 비교적 덜 들며 자동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인 정서 억제(Zapf, 2002)의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본 연구는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죄책감

과 수치심을 억제하게 되면,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탐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 중,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의도는 실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알려져 왔지만(Dubinsky & Loken, 1989; Ferrell & Gresham, 1985; Hunt & Vitell, 1986; Jones, 1991; Rest, 1986; Trevino, 1986),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가는 것과 관련성에 대하여 논쟁이 있어왔다(예: Weber & Gilliespie, 1998).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보완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의도, 그리고 도덕적 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도덕적인 의도와 실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의 차이를 죄책감의 억제와 수치심의 억제가 개별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2.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이 도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부정적인 정서로 도덕적이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Eisenberg,

2000; Tangney et al., 2007). 일부 연구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은 비슷한 상황에 발생하고 분리되어지기 어려운 정서라고 주장하는 반면(Tangney, Miller, Flicker, and Barlow, 1996a) 다른 연구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은 근원부터 다른 정서라고 주장하고 있다(Smith, Webster, Parrott, & Eyre, 2002). 비연속적 정서이론에 의하면(Barrett, 1998; Barrett, Gendron, & Huang, 2009; Colombetti, 2009) 각각의 정서는 다른 과정에 의하여 유발되며, 각 정서는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분리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서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되며, 정서간에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Colombetti, 2009; see also Barrett, 1998; Barrett, Gendron, & Huang, 2009). 본 연구에서는 비연속적 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와 관련된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은 구별되는 정서로 각각의 정서의 억제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가정하였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현상학적으로 다르다고 알려져 왔다(Niedenthal, Tangney, and Gavanski, 1994).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죄책감이 잘못된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자기 회한적인 고통스러운 정서라면 수치심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잃었을 때 느끼는 정서로 정의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Smith, Webster와 동료들(2002)은 죄책감이 후회나 자기 회한과 관련된 정서라면 수치심은 망신이나 당혹감과 관련된 정서라고 정의했다.

특히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Smith와 Webster 등의 연구자들은(2002) 죄책감은 잘못함에 있어서 인간 내면의 양심과 관련되어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것과 연관된 정서라면, 수치심은 잘못함이 공공에 드러나 본인의 명예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과 연관된 정서라고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죄책감은 개인적인 정서인(private) 반면 수치심은 타인들에게 느껴지는 정서라고(public)

구별되어지고 있다(Tangney et al, 2007).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하는 또 다른 요건은 죄책감은 행위와 관련된 정서라면 수치심은 자아, 즉 행위의 주체와 관련된 정서라는 것이다(Neidenthal et al., 1994). 예를 들어, ‘나는 바람을 피웠다’라는 상황에서 죄책감은 ‘바람을 피웠다’는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라면, 수치심은 바람을 피운 주체가 ‘나’이기에 느껴지는 정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은 결과적으로 다른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Tangney, 1991; 1993;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b; Wicker, Payne, & Morgan, 1983). 죄책감과 수치심의 다른 특징으로 인하여 두 정서가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였을 경우, 도덕적 의사결정의 각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3. 죄책감과 수치심의 억제가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Rest (1986)은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도덕성의 인지 단계로, 해당 상황이 도덕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해석해 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 판단의 단계로 그 상황이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바쁜 시간을 내어 이재민을 도우러 가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prosocial)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Haidt (2001)은 도덕적 판단은 문화나 하위문화에 의해 정해지는 덕목들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하였다. 개인은 각자의 도덕적인 잣대(moral standard)를 통하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판단은, 해당 이슈의 특징이나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Jones, 1991). 또한 이

전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나 지식, 혹은 상벌의 기회 같이 외적인 요소도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Ferrell & Gresham, 1985). 세 번째 단계는 도덕적 의도의 단계로 Dubinsky와 Loken (1989)는 이 단계를 도덕적 행동을 행할지와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인 확률이라고 정의했다. 마지막 단계는 실제적인 도덕적 행위이다. 도덕적인 행위는 개인의 지식이나 태도,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며, 상벌행동같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Ferrell & Gresham, 1985).

기존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의도 단계는 도덕적 행위의 이전 단계이며 도덕적 행동을 결정짓는 단계이다(Dubinsky & Loken, 1989; Ferrell & Gresham, 1985; Hunt & Vitell, 1986; Jones, 1991; Jung & Han, 2011; Rest, 1986; Trevino, 1986), 반드시 도덕적 의도가 도덕적 행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예: Weber & Gilliespie, 1998), 도덕적 의도와 도덕적 행위의 인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의도와 도덕적 행위를 야기함에 개별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을 통하여 도덕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죄책감은 도덕적인 의도를 높인다고 알려왔으며 죄책감을 잘 가지는 성향(guilt-proneness)은 반사회적 행동과 위험행동에 대한 의도와(Tangney, 1994) 범죄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의도를 줄인다고 알려져 왔다(Tibbetts, 2003). 또한 Steenhaut와 Van Kenhove (2006)은 죄책감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도를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도덕적인 의도에 앞서, 죄책감은 내면의 양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Tangney, 1996a; Tangney et al, 2007), 개인의 도덕적 기준(moral standard)을 작동시키고 각 상황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죄책감을 억제할 경우, 도덕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덜 도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그 상황에 대한 의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반면 수치심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수치심은 도덕적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Dearing, Stuewig, & Tangney, 2005; Stuewig & McCloskey, 2005; Tangney et al., 1996b; Tangney et al., 2007; Tibbetts, 2003),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de Hooge et al., 2008). 수치심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관련된 정서이기 때문에(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Tangney et al., 2007),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얼마나 도덕적인 행동인지 평가하거나 의도를 가지거나 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남들의 눈에 띄는 도덕적 행동단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수치심을 억제하면, 도덕적인 실제 행위를 덜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 온라인 실험 연구

4.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의 억제는 도덕적 평가와 도덕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의 억제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온라인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도덕과 관련된 정서(죄책감, 수치심)와 정서억제(정서억제, 대조집단)가 독립변인으로 조작되었으며 도덕적 평가, 도덕적 의도, 도덕적 행동이 각각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다.

4.2. 실험 방법

4.2.1. 참가자

426명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Amazon의 Mechanical Turk (www.MTurk.com)을 통하여 온

라인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2.07세였으며, 47.9%가 여성참가자였다. 참가자는 백인 42.3%, 흑인 4.5%, 히스패닉 3.8%, 아시아인 45.7% 그 밖의 인종이나 응답하지 않은 참가자 3.7%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실험 참가의 참가비로 미화 \$.50을 지급받았다.

4.2.2. 실험과정

온라인 실험은 Qualtrics.com을 통하여 고안된 온라인 형식의 서베이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주어진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동의서에 동의를 한 참가자들은 도덕과 관련된 정서(죄책감, 수치심)의 조작과 정서억제(정서억제, 대조집단)의 조작과정을 거쳐 도덕적 평가와 도덕적 의도가 측정되었다. 더불어 속임수를 통한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느냐가 측정되었다. 이후 성별, 나이, 인종에 대한 간략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 후 실험 중에 도덕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던 속임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실험은 종료되었다.

4.2.3. 실험조작

실험참가자들은 정서(죄책감, 수치심)와 정서억제(정서억제, 대조집단)가 조작되어 총 네 개의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다. 각 조건 당 피험자 수는 아래와 같다.

Table 1.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2 X 2 conditions

	Guilt	Shame
Control	71	71
Suppressing	68	55

도덕과 관련된 정서의 조작. 정서는 죄책감과 수치심 두 가지로 조작 되었다. 죄책감을 조작하는 조건인 경우, 참가자들은 이전 개인적인 경험을 회상하여 죄책감을 느꼈던 사건을 기술하게 하였다. 수치심을 조작하는 조건인 경우, 같은 방식으로 수치심의

유발이 조작된다. 죄책감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이 제시되었다(괄호 안은 수치심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보였던 지시문). *“Everyone experiences guilty (shameful) life events time to time. Think about the guiltiest (most shameful) event you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which makes you feeling guilty (shameful) even now as you simply recall it. Please describe the event, your feelings, and people around you as detail as possible”* 조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죄책감 조건에서는 죄책감을 유발하게 하였던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수치심 조건에서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던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과 관련된 정서를 조작하는 방식은 이전의 연구(Han, 2016)에서 유의하게 각 정서를 유발했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서억제의 조작. 정서 억제는 정서억제와 통제조건으로 조작되었다. 정서 억제 조건에는 20초간 정서를 억제하라는 지시문을 주었다. 정서 억제 조건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받고 20초간 정서를 억제하였다. *“If you have any feelings as you think of the person you felt guilty (shameful) toward, please try your best not to let those feelings show. In other words, as you think a personal experience of feeling guilty (shameful), try to behave in such a way that a person watching you would not know that you were feeling anything. Please remember not to let your feelings show and suppress the feeling of guilt (shame).”* 반면, 통제 조건에는 특별한 지시문을 주지 않았다.

4.2.4. 측정변인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평가와 도덕적 의도가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 다섯 가지 행동들이 묘사된 글에서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평가하고 본인이 그 행동을 얼마나 할 의도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는 0(매우 비도

덕적이다)에서 100(매우 도덕적이다)의 연속적인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도덕적 의도에 있어서는 0(의도가 전혀 없음)에서 100(매우 할 의향이 있음)까지의 연속적인 척도가 사용되었다. 도덕적인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는 ‘지체 장애아동을 위해 매주 봉사를 한다.’, ‘암이 걸린 누군가를 위해 골수를 기증한다.’, ‘더 이상 입지 않는 헌옷을 기증한다.’, ‘아픈 친구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준다.’, ‘재난을 겪은 사람을 위해 2주 동안 봉사한다.’가 있었다. 다섯 개의 시나리오에서의 도덕적 평가와(Cronbach Alpha = .81) 도덕적 의도의(Cronbach Alpha = .67) 평균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실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설문 중간에 대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에서 접속할 경우 참가비를 두 배로 준다고 하였으며 ip 주소로 위치 추적을 하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 알림을 주었다. 그 뒤, 모든 참가자들에게 ip주소 추적 결과 네팔에서 접속하였다는 거짓 메시지를 주고, 참가비를 두 배로(미화 1달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IP추적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오류로 인하여 참가비가 두 배로 잘못 전달되어서 실제 네팔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네팔에서 접속하지 않았지만 오류도 인하여 참가비가 두 배로 지급된 분들은 다음 옵션을 선택하여 달라고 지시문을 두었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라는 지시문을 두었다. 정직하게 네팔에서 접속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부과된 참가비를 돌려주겠다는 옵션을 선택한 참가자는 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오류로 인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참가비를 묵시적으로 가지겠다고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간 참가자는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험을 할 당시 네팔에서 대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보고 있었던 시기라, 피험자들은 본 절차를 실제라고 생각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ip 주소 추적 과정을 최대한 진짜 같이 고안하였다. 이해를 위하여

실제 사용하였던 화면은 다음과 같다(Fig. 1).

실제 ip 주소추적을 해본 결과 네팔이나 네팔인근에서 접속한 참가자는 없었으며, 62.3%가 두 배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도덕적인 응답을 하였다.

추가로 기존연구에서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진 Moore 외(2012) 연구자들이 고안한 8문항으로 이루어진 도덕 이탈성에 관한 개인 차이(moral disengagement)가 통제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문항에 따른 단순 응답으로만 측정되는 도덕적인 평가나 의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도덕 이탈성에 관한 개인차가 비교적 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직접적인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적 이탈 정도에 대한 개인 내재적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독립변인의 효과를 더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NOTICE

Your HIT is worth \$.50. However, based on your IP addresses, we decided to reward double (e.g., \$.50 extra) for the participants who are accessing this survey in Nepal and its neighborhood Area where the 7.8 magnitude earthquake hit on 25 April 2015. However, due to the system error, sometimes workers who are not in Nepal Area could receive the double amount of the reward afterwards, which results in nonpayment for some of the other participants. Help us assign the right reward for each person.

* PLEASE WAIT A FEW SECONDS FOR DETECTING YOUR LOCATION BASED ON YOUR IP ADDRESS.*

----- (Next page) -----

Your IP address is detected that you are accessing this survey in **Nepal and its neighborhood area**. Therefore, we will reward double (\$ 1.00) for your participation.

Please let us know if you rewarded double because of the system error. Otherwise, go to the next page to continue the survey please.

No, I am **NOT** accessing this survey in Nepal or its neighborhood area and want to refund the extra reward (\$0.50).

Fig. 1. The tool to measure a moral behavior

4.3. 실험 결과

4.3.1. 도덕적 평가

도덕과 관련된 정서와 정서의 억제에 따른 도덕적 평가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다. 정서와 정서억제의 주효과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Fig. 2와 같이 정서의 종류와 정서억제의 상호작용이 유효하였다($F(3, 261) = 7.18, p < .01$). Tukey HSD 사후검증결과, 수치심에 있어서는 수치심을 억제하지 않은 조건(대조조건)과 ($M = 82.87, SD = 18.11$) 수치심을 억제했던 조건($M = 85.95, SD = 13.48$) 사이에 도덕적 상황의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t(124) = 1.10, p = ns$), 죄책감을 억제했던 조건의 참가자들은($M = 81.43, SD = 18.19$) 죄책감을 억제하지 않은 대조조건 참가자들보다($M = 88.52, SD = 10.95$) 도덕적인 상황을 덜 도덕적으로 판단하였다($t(137) = -2.77,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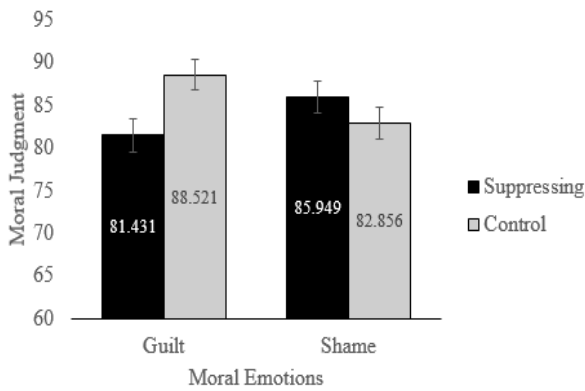


Fig. 2. Interactive Effects of Moral Emotions and Emotional Change on Moral Judgment

4.3.2. 도덕적 의도

도덕과 관련된 정서와 정서 억제에 따른 도덕적 의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정서의 종류와 정서억제의 주효과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Fig. 3과 같이 정서의 종류와 정서억제의 상호작용이 유효하였다($F(3, 261) = 14.47, p < .001$).

Tukey HSD 사후검증결과, 수치심에 있어서는 수치심을 억제하지 않은 조건(대조 조건)과 ($M = 70.28, SD = 17.25$) 억제했던 조건 ($M = 75.98, SD = 16.76$) 사이에는 도덕적 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t(124) = 1.87, p = ns$), 죄책감을 억제했던 조건의 참가자들은($M = 67.01, SD = 17.12$) 죄책감을 억

제하지 않았던 조건(대조조건)의 참가자들보다($M = 76.72, SD = 14.41$) 도덕적인 상황에서 더 낮은 의도를 보였다($t(137) = -3.6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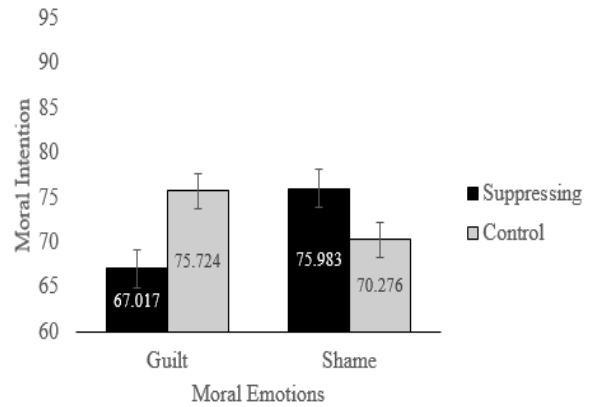


Fig. 3. Interactive Effects of Moral Emotions and Emotional Change on Moral Intention

4.3.3. 도덕적 행동

도덕정서와 도덕정서의 변화에 따른 도덕적 행동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덕적 행위를 예측하는 변수로 널리 알려진 도덕이탈성의 개인차를 통제변인으로 하였을 때, 도덕정서와 도덕정서의 변화의 주효과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Table 2와 같이 도덕정서와 도덕정서 변화의 상호작용이 유효하였다($B = -.40, p < .05$).

Table 2. Predictors of Engaging in Moral Behavior

Predictors	Moral Behavior ^b			
	B	S.E.	Wald χ^2	OR
Moral Emotion ^a	-.81	.45	3.22	2.25
Emotional Change ^c	-1.70	.94	3.28	5.50
Moral Emotion X Emotional Change	-.40	.20	4.08*	1.50
Moral Disengagement	-.84	.12	48.24*	2.31
Constant	5.52	1.27	18.96	.00

Note: N = 265; OR = odds ratio; ^a Moral Emotion is coded guilt = 0 and shame = 1; ^b Moral Behavior is coded undo = 0 and do = 1.; ^c Emotional Change is coded maintaining = 0 and suppressing = 1

즉, Fig. 4에서와 같이 수치심을 억제했던 사람들은 억제하지 않았던 사람들(대조 집단)보다 도덕적인 행위를 덜 하였다. 반면 죄책감을 억제했던 사람들과 억제하지 않았던 사람들(대조 집단) 간에는 실질적 도덕적 행위를 하는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다. 앞선 결과에서 보여주었듯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나 도덕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제 도덕적인 행동을 유도함에 있어서는 더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덜 하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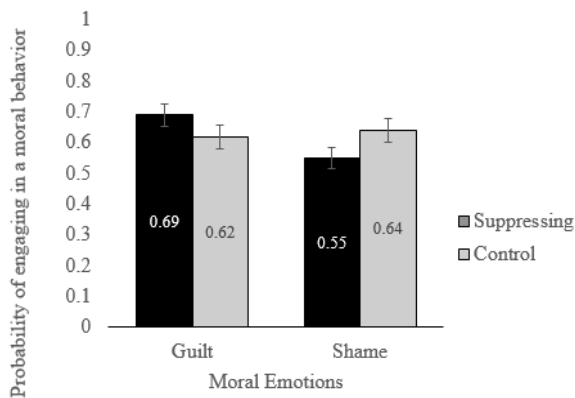


Fig. 4. Interactive Effects of Moral Emotions and Emotional suppression on Moral Behavior (Personal tendency of moral disengagement wa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5. 논의

본 연구는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의 원천과 특성이 다르다는 비연속적 정서이론(Barrett, 1998; Barrett, Gendron, & Huang, 2009; Colombetti, 2009)을 기반으로 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의 기능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추가하였다. 즉,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죄책감은 내면의 양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도덕적 기준을 성립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도덕적인 의도를 가지는 것을 통하여 도덕적인 행동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죄책감을 억제하는 것은 도

덕적 판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도덕적 행위에 따른 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함을 보였다. 반면,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의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덕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비연속적 정서이론을 지지하며, 다른 정서는 생성과정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서의 개별적 특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나 부정적인 정서는 사회적응이나 개인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억제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Mauss, Bunge, & Gross, 2007), 본 연구는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이 윤리적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밖에, 본 연구는 도덕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도덕적인 실제 행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도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실험이나 설문상황에서 측정하기 힘든 부분으로 앞으로의 도덕 연구에 있어서 실제 행동을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도덕과 연관된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의 억제가 도덕적 평가, 의도, 실제 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했다는 장점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측정된 도덕적인 행동변인의 도덕정도가 아주 작았다. 정직한 응답으로 인한 미화 .50달러의 반환을 도덕적인 실제 행동이라고 하기엔 도덕적 정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고작 얻는 이득이 .50달러(한화 약 6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응답했다는 것 역시도 도덕적인 행동을 시사하며, 실험을 실시함에 앞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사를 받을 시에도 지나친 속임수는 실험 참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통과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덕적 행동을 측정하는 수

준을 작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실제 윤리적 행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험 참가자들은 조작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연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덕적인 행동을 종속 변수로 한 연구를 제안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조작을 통한 실험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와, 정서의 억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가 조작 후에 측정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존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의 유발을 하는 조작 과정을 통하여 실제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보였기에(Han, 2016) 실험적 조작이 일어나 조건별 차이를 가져왔다고 유추할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조작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건 별 차이가 다른 정서가 유발되어서 나왔다고 직접적인 추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서를 억제하는 조작 역시도 실제로 피험자들이 정서를 억제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인의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실험적 조작 이후에 조작이 잘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넣어 종속변인이 조작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지지해야 하겠다.

세 번째로 개인의 죄책감의 성향(guilt-proneness)과 수치심의 성향(shame-proneness)을 통제하지 않아 연구 결과가 죄책감 유지와 억제의 효과 차이가 아니라 조건 별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개인 성향의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죄책감 조작의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 변인으로 죄책감 성향(guilt-proneness)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치심 조작의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하려면 통제 변인으로 수치심 성향(shame-proneness)을 확인한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참가자들이 상상했던 내용과 실제로 평가했던 내용은 서로 다른 것들이기에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조건 간 종속변인의 차이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을 보여주지만, 검증의 방법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달라질 지라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판단, 의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Tangney, 1995). 예를 들면, 표절을 해서 느끼는 수치심을 억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치심 정도가 낮아지기에, 의도를 함에 있어서도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다. Mullen & Monin (2016)의 Moral licensing theory에서는 인간은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상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람을 펴서 느끼는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더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영역에도 도덕적인 행동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원인과 다른 도덕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의도를 측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영역에 있어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억제가, 같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의 실험참가자들은 모국어인 영어로 하는 참가자들이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의 경우 죄책감과 수치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체면문화가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더 많이 교육되어져있으며,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이 도덕적인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인지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정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도덕과 관련된 정서가 다른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을 통한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의 연구에 이바지하였다.

REFERENCES

- Aquino, K., Freeman, D., Reed II, A., Lim, V. K., & Felps, W. (2009). Testing a social-cognitive model of moral behavior: the interactive influence of situations and moral identity cent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23-141.
- Barrett, L. F. (1998). Discrete emotions or dimensions? The role of valence focus and arousal focus. *Cognition and Emotion, 12*(4), 579-599.
- Barrett, L. F., Gendron, M., & Huang, Y. M. (2009). Do discrete emotions exist? *Philosophical Psychology, 22*(4), 427-437.
- Bazerman, M. H., & Gino, F. (2012). Behavioral ethics: Toward a deeper understanding of moral judgment and dishones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8*, 85-104. DOI:10.1146/annurev-lawsocsci-102811-173815
- Colombetti, G. (2009). From affect programs to dynamical discrete emotions. *Philosophical Psychology, 22*(4), 407-425.
- Dearing, R. L., Stuewig, J., & Tangney, J. P. (2005). On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shame from guilt: Relations to problematic alcohol and drug use. *Addictive behaviors, 30*(7), 1392-1404.
- de Hooge, I. E., Breugelmans, S. M., & Zeelenberg, M. (2008). Not so ugly after all: When shame acts as a commitment dev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4), 933-943.
- de Hooge, I. E., Nelissen, R. M. A., Breugelmans, S. M., & Zeelenberg, M. (2011). What is moral about guilt? acting "prosocially" at the disadvantage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3), 462-473.
- de Hooge, I. E., Zeelenberg, M., & Breugelmans, S. M. (2007). Moral sentiments and cooperation: Differential influences of shame and guilt. *Cognition and Emotion, 21*(5), 1025-1042.
- Dubinsky, A. J., & Loken, B. (1989). Analyzing ethical decision making in market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2), 83-107.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665-697.
- Ferguson, T. J., Stegge, H., &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4), 827-839.
- Ferrell, O. C. & Gresham, L. G. (1985). A contingency framework for understanding ethical decision making in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49*(3), 87-96.
- Frank, R. H. (1988). *Passions within reason: The strategic role of the emotions*. New York, NY, US: Norton.
- Frank, R. H. (2004). Introducing moral emotions into models of rational choice. In A. S. R. Manstead, N. Frijda, & A. Fischer (Eds.), *Feelings and emotions: The Amsterdam symposium* (pp. 422-440).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s.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852-8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K. (2016). *The effect of suppressing guilt and shame on the immoral decision-making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unt, S. D. & Vitell, S. (1986). A general theory of marketing ethics. *Journal of Macromarketing, 6*(1), 5-16.
- Jones, T. M. (1991). Ethical decision 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366-395.
- Jung, J. Y. & Han, S. H. (2011). The review of neural

- basis for prosocial moral motivation and moral decision-making,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4(4), 555-570.
- Mauss, I. B., Bunge, S. A., & Gross, J. J. (2007). Automatic emotion regul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46-167.
- Moore, C., Detert, J. R., Trevino, L. K., Baker, V. L., & Mayer, D. M. (2012). Why employees do bad things: Moral disengagement and unethical organizational behavior. *Personnel Psychology*, 65(1), 1-48.
- Mullen, E. & Monin, B. (2016). Consistency versus licensing effects of past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363-385. DOI: 10.1146/annurev-psych-010213-115120
- Niedenthal, P. M., Tangney, J. P., & Gava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I hadn't":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585-595.
- Rest, J.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Smith, R. H., Webster, J. M., Parrott, W. G., & Eyre, H. L. (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 Steenhaut, S. & Van Kenhove, P. (2006). The mediating role of anticipated guilt in consumers' ethical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69(3), 269-288.
- Stuewig, J. & McCloskey, L. A. (2005). The relation of child maltreatment to shame and guilt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routes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Child Maltreatment*, 10(4), 324-336.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8-607. doi:10.1037/0022-3514.61.4.598
- Tangney, J. P. (1993). Shame and guilt. In C. G. Costello (Ed.), *Symptoms of depression.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pp. 161-180).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Tangney, J. P. (1994). The mixed legacy of the superego: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hame and guilt. In J. M. Masling & R. F. Bornstein (Eds.), *Empirical perspectives on object relations theory* (pp. 1-28).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ngney, J. P. (1995).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8), 1132-1145.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a).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1269.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doi: 10.1146/annurev-psych.56.091103.070145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b).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ibbetts, S. G. (2003). Self-conscious emotions and criminal offending. *Psychological Reports*, 93(1), 101-126.
- Trevino, L. K. (1986).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A Person-Situation Interactionis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601-617.
- Weber, J. & Gillespie, J. (1998). Differences in ethical beliefs, intentions, and behaviors: The role of beliefs and intentions in ethics research revisited. *Business Society*, 37(4), 447-467.
- Wicker, F. W., Payne, G. C., & Morgan, R. D. (1983). Participant descriptions of guilt and shame. *Motivation and Emotion*, 7(1), 25-39.

Zapf, D. (2002). Emotion wor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2(2), 237-268.

원고접수: 2016.03.31

수정접수: 2016.05.03

게재확정: 2016.06.15